

‘돈먹는 하마’ 별정우체국

노웅래 민주당 의원

10년간 1조, 10곳 중 6곳 ‘적자’ 국가지원 의존, 경영전략 부족 우본에도 악영향, 특단대책 필요

(최근 10년간 별정우체국 수지 현황)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24	△505	△543	△930	△1221	△724	△1106	△1126	△1779	△1698

/자료=노웅래 의원실

별정우체국 적자가 10년 간 1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중 66%가 10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별정우체국 누적 적자는 1조146억 원이다.

별정우체국은 정부가 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이다. 소유자(피지정인)가 본인 부담으로 청사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정부 위임을 받아 체신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국가 재원이 부족

했던 1960년대부터 제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732곳의 별정우체국 중 98%인 719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66%인 486곳은 10년 연속 적자를 냈다. 10년 중 9차례 적자를 낸 곳도 77곳, 10년 연속 흑자는 1%인 8곳에 불과했다.

별정우체국 만성 적자는 소재지가 대부분 우편 물량이 적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별정우체국당 연평균 수입은 2억7000만원이었지만, 비용은 5억원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만 2억3000억원인 셈이다. 읍·면 지역 일반 우체국 적자는 1억1000만원으로, 2배를 웃돈다.

다만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별정우체국이 국가 인건비 지원 등에 의존했기 때문에 자구 노력이 없고, 경영·판매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별정우체국 제도가 만성 적자로 인해 오히려 보편적 서비스를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별정우체국 만성적자가 우정사업본부 경영수지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올해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현대차, 임단협 마무리 됐지만...

기아·르노삼성·지엠 어찌나

3사, 임단협 두고 노사갈등 거세져 기아·한국지엠, 연내 타결 힘들 듯 지엠노조, 6일까지 제시안 없으면 9~11일 주·야간 8시간씩 파업돌입

한국지엠의 경우 추석 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석 이후 새 노조 집행부를 선출할 경우 노조는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아차도 올해 판매 악화와 노사 갈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아차는 올해 누적 판매가 180만8100대로 작년 동기보다 1.9% 줄었다. 여기에 올해는 임단협 타결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시장 경쟁력은 위축될 전망이다.

현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22일 교섭을 중단하고 새 노조 집행부에 교섭권을 이관했다.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가 추석 이후로 예정돼 있어 새 집행부는 10월 이후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새 집행부가 연내 사측과 임단협을 타결할 가능성은 작아진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사측이 노조에 제시했던 ‘희망퇴직’이 시발점이 됐다. 앞서 회사는 생산물량 감소로 시간당 차량 생산량(UPH)을 60대에서 45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순환휴직과 희망퇴직 대상만 400여명으로 추정된다. 수익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르노삼성과 노조는 단기간 임금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의 미래 경쟁력 확보는 더욱 힘들어진다.

한국지엠은 본사 차원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며 노사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완전히 타결했지만 다른 완성차업체들의 노사 갈등은 현재 진행 중이다. 회사의 실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실적 부진에 빠진 기아차와 한국지엠, 르노삼성은 임단협을 두고 노사갈등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특히 기아차와 한국지엠은 연내 임단협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성실 교섭촉구 기간인 이달 6일까지 사측이 임금 단체교섭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9~11일 주·야간 각각 8시간씩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사측에 전달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으로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 7월 9일부터 사측과 8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이 기본급 인상 등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부분파업과 잔업·특근 거부 등 쟁의행위를 벌여왔고 협상이 장기화할 기미를 보이자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한국지엠 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연합뉴스

영광군 공고 제2019 - 649호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명 :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수립
- 나. 위치 및 규모
 -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887번지 일원
 - 면적 : 195,698㎡
- 다. 시행자 : 영광군
- 라. 승인기관 : 전라남도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19. 9. 3. ~ 2019. 10. 4.(21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영광군 문화관광과, 백수읍사무소
- 다. 정보통신망 : 영광군(www.yeonggwang.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설명회 개최 및 장소

- 가. 일시 : 2019. 9. 25.(수) 15:00
- 나. 장소 : 영광군 백수읍사무소

4. 의견 제출 및 기타

- 가. 장소 : 열람장소와 동일
- 나. 방법 : 서면 작성하여(양식은 각 열람장소에 비치) 제출
- 다. 기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까지
- 라. 의견제출대상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안의 주민
- 마. 의견제출 범위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문화관광과(☎ 061-350-5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매각’ 고수에 최종인수가 2조원 안팎

» 1면 ‘애경-현대산업...’서 계속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항공 주식 688만8063주(지분 31%·구주)와 아시아항공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구주 인수대금 4500억원을 비롯해 신주 발행액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1조원 이상의 인수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LCC인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6개 자회사를 통째로 매각하는 ‘통매각’이어서 최종 인수는 2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선 애경그룹과 KCGI가 인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애경그룹의 경우 총 자산규모는 5조 2000억원 수준이지만, 현금성 자산은 4000억원을 밑돈다. KCGI도 한진칼 경영참여를 위해 지분매입에 나섰다. 최근에는 자금력 부족으로 이마저 여의치 않다. 두곳 모두 아시아항공 매각자금을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인수자금을 지원하는 공동인수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래에셋대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유력한 인수자로 거론되는 이유다. 증권업계 자기자본규모 1위인 미래에셋대우와 호텔, 면세점 사업으로 몸집을 키우는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항공을 인수하면 시너지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